▪ 교회소식 ▪

왕국주일 :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선교회총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총회)입니다. 연간사업을 정리하고 신임원을 선출하여 사무실에 보고해주세요.
사업보고 : 각 부서와 기관들은 사업보고서를 11월 27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부와 환경부는 내년 세미나 일정도 알려주세요)
교적정리 : 교회 교적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교적부를 작성하여 1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실천 : 어두운 이 나라를 밝히는 심정으로 촛불을 켜고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김재환 집사

11월	1부 영접위원	최재욱 이수정
	1부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김인걸 권혁순 박상규 허신열 이은주 유경순 박경원
	2부 헌금위원	박홍재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이은미 이부용 김광일 신정훈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김혜순 김애정 서수진 남명진 권혁래 설규범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3여선교회

2016-47 11월 20일

108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왕국주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일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맑고 파란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물질적 욕망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던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바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끝없이 추락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지 못하고 권력유지만을 생각하는 이를 꾸짖어주십시오.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려는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3,14a …… 인도자

▲ 교 독 문 …… 99. 나라 사랑(1)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이형숙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135. 어저께나 오늘이나 …… 다 함께

▲ 성경봉독 …… 눅 17:20-25 …… I. 인도자 II. 이왕준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 양 …… 예수 생명의 주 …… 찬양대

예수 그는 누군가 위대하신 구세주 죄인 위해 오신 주
예수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는 생명의 주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김명순 이교영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재환
김진선 김혜영a김훈동 유경순 문복순 박병구 박시내 박정윤 방 준 변재민
이소혜 송인선 송형운 하미림 안길상 이형숙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유상진
유은정 윤미경 윤영미 윤정득 은종인 이광용 이주영 오재영 임선양 신현숙
전영린 김행자 정두리 정영례 최원남 김희천 최윤선 최은미 최 현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감사헌금
김동영 김영란 김희선 황정희 박병구 김인순 박예림 방경선 변성호 유성애
송상경 양경해 유청빈 이광재 이은혜 정윤성 추은총 홍성식 이유리
나오미2선교회 무명16

녹색꿈헌금
김영호 임설희 정효진 무명2

생일감사헌금
박재영 무명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총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우리가 없는 이튿날에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서늘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와 시야가 흐려지겠습니다
도로는 미끄럽겠습니다/
한낮에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점차 날씨가 개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강한 돌풍이 불어와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겠습니다/
한밤중에는
전국에 걸쳐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만
남동부 지방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기압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날씨가 맑겠습니다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에겐
우산이 유용하겠으니
외출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고통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빛을 찾아 나오라 예수는 새생명이도다
예수는 영원한 빛 새벽별
생명의 주 새로운 힘 되시네
옛부터 영원까지 예수는 소망이라
하나님의 외아들 인자로 오셨도다
순결하신 어린양
예수는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양이 되시려 죄가 없는 어린양
예수는 생명의 주 예수는 생명의 주

말 씀 …… **다른 삶을 상상하라** …… 김기석 목사
거룩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582.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사십시오.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다 함 께: 아멘. 복잡하고 갑갑한 현실에 갇혀 하나님나라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하나님 닮은 의분을 가진 사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욕을 했다는 사실은 중산층 부르주아지 윤리관에 젖은 우리를 무척 곤혹스럽게 한다. 우리는 보통 그분들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점잖은 양반들로 길들여 왔기 때문에 도발적인 발언을 일삼거나 스캔들을 일으키는 인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들이 입에 올린 '독사의 자식'은 날로 번역하면 '뱀새끼'란 말이 되고 한국식으로 번안하면, '개새끼'가 아니겠는가. …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손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에게 '마귀 새끼'라고 퍼부음으로써 입심에 관한 한 그분의 친척 형을 훌쩍 뛰어넘으셨다. 누구보다 주님을 닮고자 했던 바울도 주님의 걸쭉한 입담을 본받음에 거침이 없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개놈들'이라 부르기에 서슴지 않았으니 말이다.(빌3:2) 하지만 이들 3인방이 퍼부은 욕사발이 문제가 되기는커녕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분들의 욕에 의분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고, 다른 이의 분노를 이해하고 연대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정의는 팽개치고 종교 의무만 행하는 백성에게 "너희 제사가 역겹고 제물은 구역질이 난다."(사1:13)고 하신 하나님은, 정작 의분을 품어야 할 일에는 지독한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서 비본질적인 욕 한 마디에 길길이 날뛰는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실까. 기독교 지성이자 미국 교계 지도자인 토니 캄폴로 교수가 한 번은 집회에 가서 일부러 상스러운 말을 한 다음, 자신의 발언에만 분을 내는 이들에게 이르기를, 말 한 마디에 그토록 분노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사회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잠잠하냐고 꼬집은 적이 있다.

소위 폭력적인 행동이란 것도 그렇다. 누군가 조금만 거칠게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은 이후로 교인들 눈 밖에 나는 것이 다반사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분노를 몸짓으로 드러내는 본을 친히 보여 주셨다.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신 그분이 가판대를 둘러엎고 의자를 내동댕이치고 짐승에게 채찍질을 해 댄 것을 무슨 슬로 묘선으로 하듯이 점잖게 하셨을 줄 아는가? "잠깐만요, 제가 상을 둘러엎을 테니 좀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대단히 과격하게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성전에서의 매매행위를 통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까지 불의한 부를 축적하는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폭력'에 대해 상을 둘러엎는 '폭력적 행동'으로 맞섰다. 중세의 화가 조토는 이 장면의 예수님을 화폭에 옮기면서 주먹을 쥐고 환전상을 한 대 칠 것 같은 과격하고 흥분한 모습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신을 삼켰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열정을 드러내는 이를 용납하지 못한다.

존경하는 본회퍼가 "미친 운전수가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할 때에는 그 운전수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한 것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구가 이봉창과 윤봉길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폭탄을 던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나는 예수님께 기대어 욕을 옹호하거나 거친 행동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 부디 누가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든 은혜가 안 된다며 정죄하는 대신 그 사람의 분노와 아픔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욕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의 정서가 얼마나 황폐한지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회인지, 얼마나 여유가 없고 거친 사회인지 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닮은 의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의분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박총, 「욕쟁이 예수」(살림) 중에서